

행복을 배우러 간 핀란드 IFYE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전혜빈

나는 해외를 혼자 가보는 게 어릴 때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아직 어린 나는 겁이 많았고 무서웠었다. 그래서 올해 핀란드에 혼자 오기 전까지 2019 중국 SUMMER SCHOOL, 2022 이탈리아 국외연수와 같은 나름 준비를 했었다.

막 학기까지 휴학 없이 수료하며 나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내가 한 활동들도 많아졌다. 딱 책임감과 신뢰의 무게에 지쳐 정작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모든 일을 무사히 마무리 짓고도 쉽게 마음이 편안아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행복하지 않았었다. 인생을 내 행복이 아닌, 내 가치를 쌓는 데만 목표를 두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목표지향적인 삶에서 내 행복을 우선시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었다.

그리고 내 전공(농업자원경제)과 복수전공(관광 경영학)을 대학에서 공부하며 자연경관, 관광지, 조경, 농업에 큰 관심이 있었다. 이와 연계해 구체적인 직업설계에 있어 선진국을 탐방해보고 싶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서 걱정 안 하며 살기, 자연과 함께 스마트폰 던지고 살기, 북유럽 인테리어와 정원 보기, 지역 마을과 문화 체험하기와 같은 목표도 세우고 갔었다.

나는 한국에서 일본을 거쳐 핀란드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선택했다. 일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아 일본의 면세점과 공항을 우선 구경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유하는 과정에서 난생처음 겪어보는 일들을 홀로 마주했고 식은땀을 흘리며 혼자 미숙한 영어로 공항 관계자들과 소통했다. 경유 대기 시간인 6시간 동안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고 비행기에 무사히 탑승하자마자 그대로 기절한 듯 잠들었다.

새벽 05시 30분 헬싱키 공항에 도착하자 또 홀로 택시에 탑승해야 했다. 열 명쯤 돼 보이는 덩치 큰 택시 기사분들이 모두 나를 보며 말을 걸고 본인 택시를 타라 해 무서웠다.

다행히 호텔에 무사히 도착하여 대만 친구와 같은 숙소를 사용했다. 대만 친구는 한국을 좋아하고 특히 KPOP에 관심이 많은 친구였다. 한국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긴장이 풀어졌다. 그 후 이틀 동안 스위스, 미국, 핀란드 친구들과 헬싱키 구경을 하였다. 말로만 듣던 헬싱키를 걸어 다니다니! 정말 신이 났었다.

이곳에서 외국 친구들을 사귀었다는 사실은 좋았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 비해 영어를 잘하지 못하였고 토익스피킹 IM2 수준으로 내 영어 발음에 자신감이 부족했다. 또한, 모든 게 낯선 상황에서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크게 가지고 있었었다.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려고 노력했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정 거리를 두었던 거 같은데 이 부분이 나는 조금 아쉽다. 난 최대한 실수하고 싶지 않아 그랬고, 내성적인 성격이기도 해 선을 그었지만, 그들은 나랑 친해지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2023년 6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4개의 홈스테이 가정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약 2주씩 생활했다. 나는 여행을 좋아하고 혼자 대중교통을 타고 지역 곳곳을 보고 걸어 다니는 것을 선호하는 활동적인 성격이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여러 지역을 방문하기를 원했고 FINLAND 4H 관계자분들은 그렇게 조정해주셨다. 약 두 달간 핀란드 거의 전역을 거쳐 정말 많은 곳을 여행하였다. 당시에는 체력을 잘 관리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나름 힘들었다. 하지만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눈과 마음에 담아와서 그때의 내가 최고의 선택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1. 22.6. - 8.7. 2023

첫 호스트 패밀리 가족인 Anne와는 Riihimäki역에서 만났다. Anne은 학교에서 농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 나는 Anne이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사생활에 관해 질문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상대가 먼저 자기 얘기를 말하거나 묻는 게 아닌 이상 물어보지 않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다. Anne은 3명의 남자아이들과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다. 나는 여동생만 있고 여자 사촌이 많다. 이런 나에게 생긴 남자 형제라니! 그리고 동물을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는 나에게 생긴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이라니! 줄곧 아파트에 살며 집 앞마당을 가져본 적도 없는 나에게 생긴 넓은 마당과 트램펄린, 놀이터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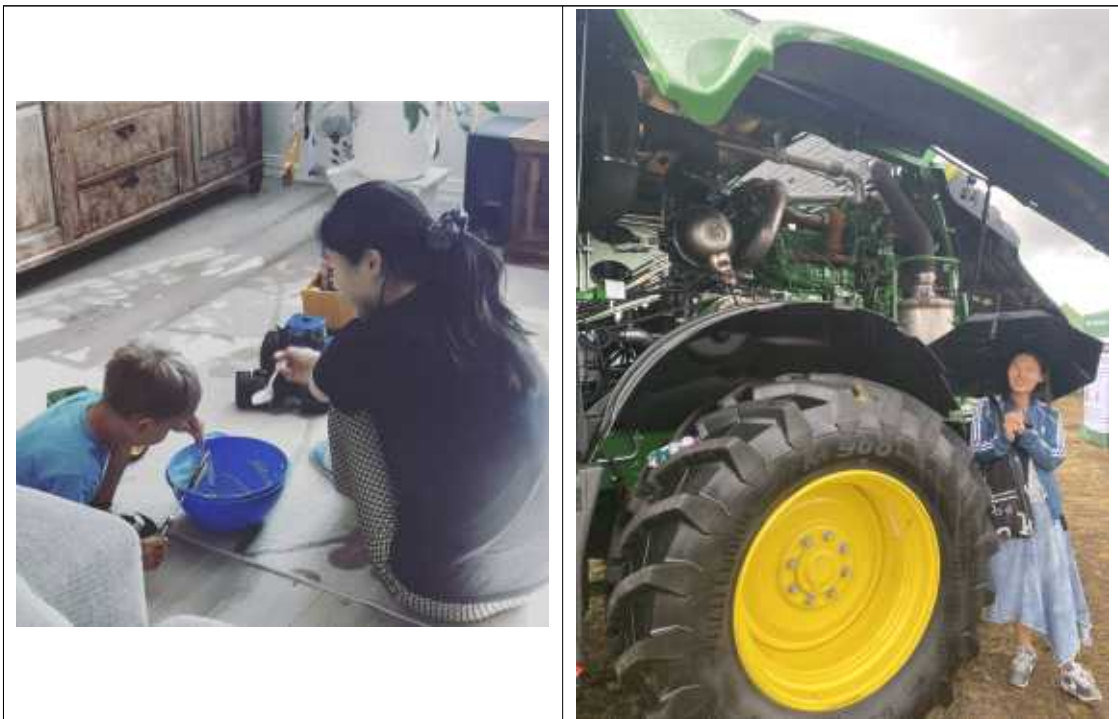
강아지 아르마와 막내 5살 vilhem은 처음에는 나를 낯설어하며 계속 피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옆에 그들은 함께 했다. 강아지 아르마가 내 침대에 올라오며 나를 기다리고 자기 배를 보여주는 모습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개털과 개 냄새에 예민한 나였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vilhem은 나와 단둘이 있는 걸 어색해했지만 어느새 자기 옆에 내가 있어 달라 말했다. 저녁 시간 단둘이 방문을 닫고 시간을 보낸 것도 기억에 남는다.

Anne 가족은 넓은 호수 앞 사우나가 딸린 별장을 가지고 있었다. 소시지와 고기를 구워 먹고 수영을 했다. 수영을 못하고 물을 무서워하던 나였지만 깨끗한 호수를 보니 물과 가까워지고 싶어 깊이 않은 곳에서 물놀이를 하였다. 비교적 강한 햇빛 속 물은 정말 깨끗했고 눈 앞에 펼쳐진 숲들을 보며 그동안 복잡한 생각들로 지친 내 마음이 진정되는 걸 느꼈다.

6월 29일 Anne과 vilhem과 함께 Tampere에 갔었다. Anne는 예약한 안과 진료를 vilhem과 받으러 가고 나는 그 시간 동안 혼자 Tampere를 구경했다. 외국에서 혼자 큰 도시를 구경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7월 1일 Anne의 여동생과 여동생 친구와 헬싱키에서 만났다. 비 오는 날 쌀쌀한 날씨 속 혼자 타는 기차에 두근거렸다. 그들과 헬싱키를 구경하며 즐겁게 지냈었다. 이날은 번역기 없이도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 신이 났었다. 그들과 헤어지고 바아버(anne의 남편)가 나를 역까지 데리러 왔다. 비교적 어색한 사이인 바아버와 단둘이 차 속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걱정했다. 하지만 바아버는 나에게 궁금한 게 정말 많았었고 1시간가량 우리는 계속 질문을 주고받았다. 나는 궁금해졌다. “당신이 ifye 프로그램 host family를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속으로 나는 그래도 무슨 이득이 있어서 신청한 거겠지?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아버는 나에게 웃으며 “why not?”이라며 기꺼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나의 젊음을 부러워하며 많은 곳을 여행하라며 조언해주었다. 나 역시 먼 외국에서 온 누군가에게 계산적인 마음을 뒤로 한 채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7월 5일 핀란드 최대 규모인 농업 전시회를 갔다. 무수히 많은 농기계를 보며 입이 썩 벌어졌다. 7일은 LOPPI 지역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다. LOPPI 4H 친구들은 이날 케이크를 만들어 직접 판매까지 하였다. 케이크를 만들어 본 적이 없지만 6시간 동안 또래 친구들을 도와 케이크를 만들었다. 핀란드에서 또래 여자인 친구들을 사귀고 싶었는데 만나서 반가웠고 힘들었을 텐데도 정리까지 완벽히 하는 모습이 대견하게 느껴졌다. 해보지 않은 많은 것들에 도전한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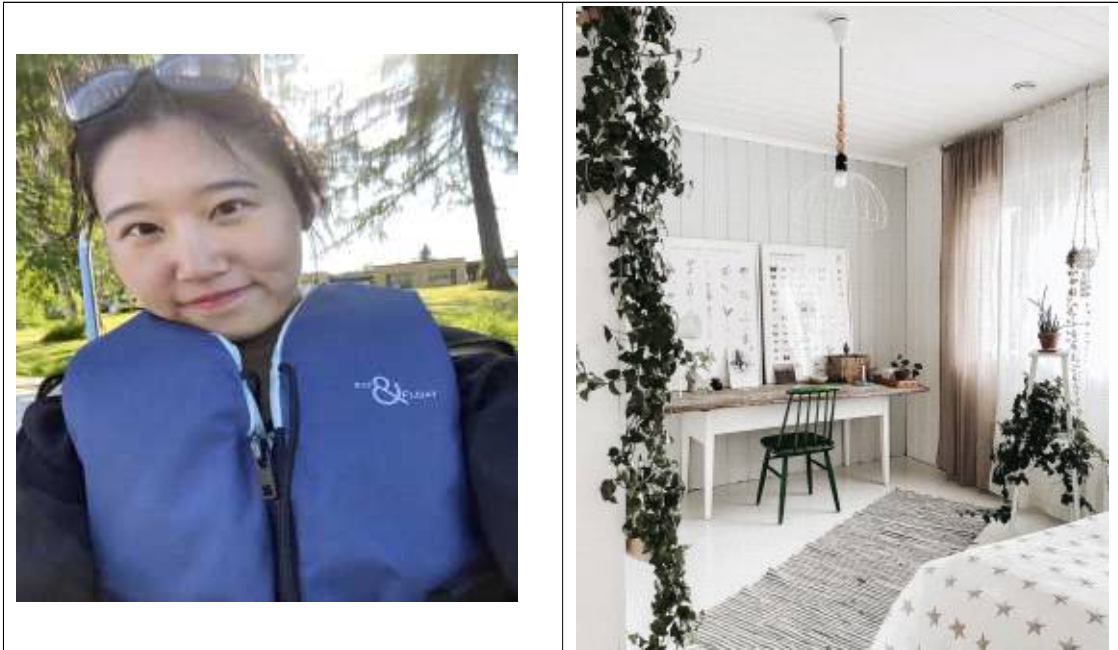


2. 8.7. - 24.7. 2023

Anne와 헤어지고 기차 안에서 많이 울었다. 이제는 아마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차를 타고 핀란드 중부에 위치한 Haapavesi에 갔다. Ulla는 사진기사로 개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인스타그램에 지역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

는 멋과 가치가 Ulla와 맞아 정말 재미있었다. Ulla는 쇼핑을 좋아하고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다. 나만을 위한 예쁜 방을 선물해 주기도 해 감동을 크게 받았었다.

Ulla 가족과 2박 3일간 Oulu에 갔다. Oulu는 큰 도시로 정말 방문하고 싶었다. Oulu에서 배를 타고 섬과 섬을 이동하며 눈에 담은 숲과 호수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 핀란드에서 첫 바다를 보며 바다 건너편 보이는 땅이 스웨덴이라는 말을 듣고 타국에 있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했다. 바다를 보며 일본의 침략을 겪은 우리나라와 스웨덴과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핀란드의 역사에 대해 생각해보기도 했다.



3. 24.7. - 6.8. 2023

백야와 함께 여름을 보내고 있는 나는 세 번째 호스트 가정이 사는 Ranua로 이동했다. Ranua는 북극권이랑 가까워서 해가 거의 지지 않았다. 그리고 정말 추워 기모 후드티를 입고 다녔다. rovaniemi역에 도착하니 산타클라스 사진이 곳곳에 걸려있었고 9명의 여자 아이들이 나를 반겼다. 호스트 가정은 집 앞 마당에서 말을 키우며 말 캠프를 운영하는 여행서비스를 직업으로 갖고 있었다. 세계 최북단 동물원인 Ranua zoo에서도 사육사로써 당나귀를 보살피고 있었다. 관광을 배운 나는 그들의 고객 서비스 전략을 직접 볼 기회를 가진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Ranua Zoo를 구경하며 북극 동물 또한 실컷 봤다. 동물원은 정말 넓었고 한두 마리의 동물에게 주어진 공간이 넓어 이 점은 좋다 생각했다. 하이킹하며 길가에 블루베리를 따 먹고 곳곳에 배치된 장소에서 소시지를 구워 먹었다. 이제는 핀란드 사람들이 나를 신기하게 쳐다봐도 아무렇지 않았다. 오히려 동양인이 거의 없어서 핀란드 문화를 더욱 잘 느낀 것 같다.

7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광장에 엄청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관련 축제에 갔다. 사실 나는 정말 이 시간이 힘들었다. 번덕스럽고 추운 날씨 속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했지만, 가만히 의자에 앉아 마주치는 사람들과 종일 대화를 나누는 문화가 나에겐 낯설었기 때문이다.

핀란드는 여름이 짧고 겨울이 정말 춥고 길다. 그래서 여름이 그들에겐 중요하고 이 시기에 많은 사람을 만나며 야외활동을 즐기는 것 같다.

8월 1일에는 핀란드 대표 관광지 산타클로스 마을에 갔다. Arctic circle을 넘고 곳곳을 구경했다. 여름이라 사람은 적었지만 방문한 거 자체로 너무 좋았다. 산타클로스를 직접 만나 대화하고 사진까지 찍었다. 그러나 나는 더 마을을 구경하고 싶었는데 시간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큰 도시인 Rovaniemi에 온 김에 곧 개학을 앞둔 아이들의 학용품 또한 사러 가야 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내가 아이들에게 일정을 모두 맞춰야 한다는 게 조금 싫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9명이고 바쁜 엄마를 찾으며 많이 우는 아기를 보며 나도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 와서 생각해보니 주변 친구들 반응도 그렇고 나 스스로도 이 일을 계기로 전보다 마음이 더 넓어진 것 같다.

3일부터 6일까지 9명의 아이를 위한 말 캠프가 열렸다. 나도 같이 참여해 여러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알려주고 같이 말을 타기도 했다. 말을 타고 도로를 달리며 지역 플리마켓에 방문하기도 했다. 이제는 말을 타는 게 무섭지 않았다.

Sararisa(host family mother)는 나에게 성냥으로 장작에 불을 붙이는 방법과 핀란드 전통 악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또한 그녀와 핀란드 전통 빵도 2시간동안 직접 만들었다. 그녀는 내가 주도적으로 핀란드 문화를 겪어보길 바랐고 그 점이 아직도 고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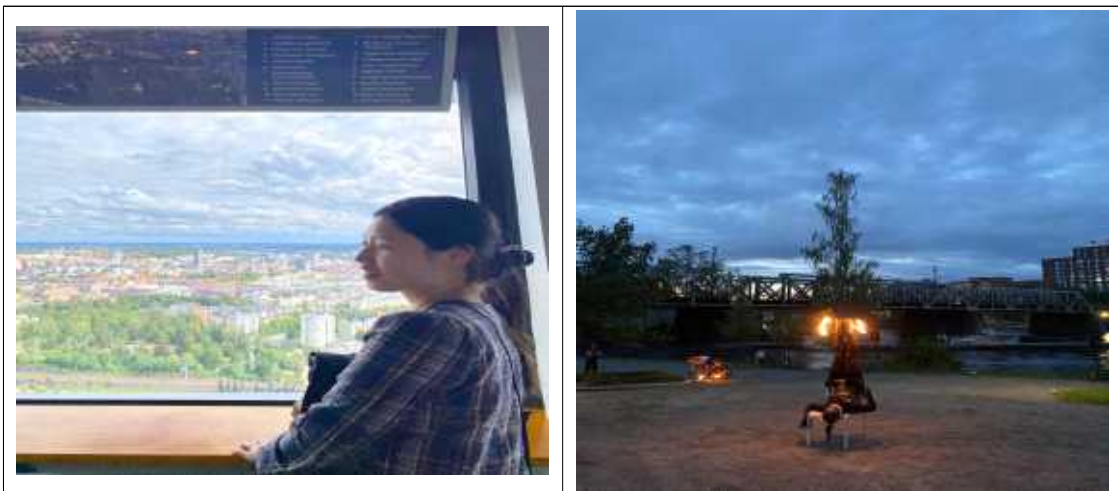
아이들은 KPOP을 즐겨 들으며 한국 뷰티에 관심이 많아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었다. 나중에 한국에 오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Sararisa의 소중한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한국에 오기를 원하니 기꺼이 내가 한국에 초대하고 대접해주고 싶다.





4. 6.8. - 19.8. 2023

piia와 9일부터 11일까지 함께 했다. piia는 댄서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다. piia는 미국으로 ifye를 다녀왔었고 핀란드에 온 나와 함께하기를 원했고 나 역시 piia를 만나고 싶었다. piia와 놀이동산을 가고 박물관을 방문하였다. 그중 최고는 Tampere에서 piia와 그들의 단원들의 불꽃 쇼를 직관한 것이다. 백야가 서서히 끝나 어두워진 하늘 아래 호수 앞에서 열린 불꽃 쇼는 수많은 사람의 시선을 끌었고 나 역시 계속 감탄했다. piia와 단원들의 분장한 모습에 조금 무서웠지만, 그들은 Tampere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어 교습소가 있다는 것도 소개해주며 "enjoy"라는 말까지 건넸다. piia는 내가 핀란드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도 영어를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나는 더욱 내 할 말을 하지 못해 아쉽다. 그녀의 질문에 답을 잘해야 했는데 서툰 영어에 그쳐 대답을 길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핀란드 교육이 유명한 건 익히 알고 있었다. 핀란드 교육을 직접 접해보고 싶었던 나는 핀란드 교육 중심도시 Jyväskylä와서 정말 들떠 있었다. 8월 15일 3명의 홈스테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수업 참관을 하였다. 친구들과 신나게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귀여웠다. 앞으로

먹을 일이 없을 거 같은 초등학교 급식 또한 맛있게 먹었다. 눈여겨본 점은 선생님을 돕는 helper가 수업마다 함께한다는 점이였다. 그리고 수업 중 갑자기 기지개를 켜고 체조하는 시간이 있어서 놀랐다. 또한, 복도에 걸려진 큰 방석을 교실 바닥에 깔고 학생들은 눕고 선생님이 마치 동화책을 읽어주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참 인상 깊었다. 아이들은 학교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와 자꾸 대조하게 되었고 생각이 깊어졌다. 다음 날은 고등학교에 가 핀란드어 수업을 2명의 홈스테이 아이들과 같이 들었다. 빌리야랑 오토바이를 타고 하교했는데 정말 긴장됐고 짜릿했다.

더운 날은 호수 건너편의 건물들을 보며 호수에서 수영하는 게 좋아 한없이 뉘 놓기도 했다. 매일 먹던 빵도 이제는 주식으로서 익숙해져 있었다.

Jyväskylä 4H 관계자를 만나며 4H 사무실을 구경하였다. 핀란드 지역마다 위치한 4H가 지역 청소년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4H가 핀란드에서는 정말 유명한 단체라는 말을 듣고 한국 4H도 인지도가 더욱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각자 가사분담을 맡아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였다. 가만히 있는 거 같아 도와주려 했지만 8명의 아이가 각자 역할이 있으니 선뜻 나서지는 않았다. 숲을 하이킹하며 소시지를 구워 먹고 블루베리를 따는 것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 중의 하나가 되었다. 딱히 취미가 없던 나였는데 많은 취미가 생겨버렸다. 6살인 TILDA가 작은 소나무 열매를 계속 따는데 알고 보니 내일 한국으로 떠나는 나를 위해 선물이었다. TILDA가 준 편지와 솔나무 열매를 보며 순수한 아이의 마음에 감동하였다. MARIA와 ANTTI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계속 영어로 나에게 할 질문들을 연습하였다. 핀란드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나를 위해 아이들에게 영어를 사용하라고 말하며 매번 핀란드어를 영어로 해석해주는 배려로 나를 도와줘서 참 고마웠다. 그리고 같이 아시안 식당에 가서도 나의 반응을 계속 살피줘서 고마웠다. 공항으로 가는 날 마리아와 ANTTI와 인사를 했는데 그들의 눈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어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기분이 이상해졌다. ANTTI가 나에게 해줬던 "YOU ARE STRONG"이라는 말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밤새 비행기가 북극을 통과하며 추웠었다. 아직 어리둥절했지만, 도착 후 내린 일본 도쿄는 34도였다. 이제야 여름을 실감했다. 인천 공항 검사대에서 줄 서 있는 수많은 사람이 급하게 나가기 위해 걸음을 서두르는 것을 보며 한국에 온 것을 실감했다. 핀란드에서 보낸 두 달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기도 했고 여러 감정이 뒤섞여 울컥했다.

핀란드 사람들은 재활용에 정말 진심이다. 거의 모든 용기에 "RECYCLING"이 적혀 있고 마트에 가면 병과 영수증(마트에서 물건과 교환)을 거래해 준다.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하며 과일도 세척 없이 바로 먹는다. 음식을 먹기 전 길가의 풀로 손을 닦고 미세먼지 하나 없는 하늘에서 천진난만하게 수영을 즐기고 배리를 따던 아이들이 떠오른다. 그리고 항상 나에게 "IF YOU WANT"라고 제안해주던 가족들이 떠오른다. 나를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들의 격 있는 친절함을 나도 배우고 싶었다. 무엇보다 정직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서로 신뢰하는 것 같았다. 그 당시 열풍이던 cha cha cha 노래도, 핀란드 국민 캐릭터인 무민도, 가족과의 시간을 정말 많이 보내는 가족주의인 문화도 생각한다. 나와는 정말 다른데 왜인지 몰라도 적응해서 정말 잘 살았다. Anne가 나에게 해줬던 "you are kind and open mind"라는 말도 생각한다. 나는 핀란드 사람들이 개인주의 문화에 내성적인 특징을 띄고 있다고 해 나를 기대했었다. 나 역시 개인주의에 내성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와보니 나에게 정말 잘 맞아서 평생을 한국에 살지 않아도, 나에게 맞는 나라를 찾아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면 영어 실력을 무조건 올릴 것이라는 목표가 생겼다.

IFYE 파견 전 경비를 스스로 벌고 동시에 영어 공부를 하며 성적을 올렸었다.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다. 누군가는 나에게 미래를 위해 열심히 달릴 때라며 조언을 해주기도 하셨다. 하지만 그냥 내 마음은 핀란드에 가고 싶었다. 나는 내 마음을 따를 용기를 가졌을 뿐이다. 현재의 나는 평생을 곱씹을 추억 하나를 만들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됐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다른 나라에서 혼자서 씩씩하게 내 인생을 살았었다. 무엇보다 나도 내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을 기꺼이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엄청 높은 건물도,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매일 먹은 것도, 값비싼 여행을 한 것도 아니지만, 몸은 고되었지만, 마음 하나만은 정말 편했다. 잔잔한 일상의 행복을 선물 받았다. 오늘의 나도, 미래의 나도 매일의 행복을 그리며 살길 바란다.

